

세계의 食糧 危機 意識

△ 豐作豫想을 收奪한 春雨와 旱魃

前年度와는 달리 74—75年度の 世界食糧事情은 豐作에 依해서 相當히 緩和될 것으로 期待되어 왔었다. 그런데 지난봄의 過剩雨量에 夏期旱魃이 겹쳐진 나머지 決定的인 減産으로 收穫豫測이 굳어져 가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9月 12日 밝혀진 바로서 國際小麥委(IWC) 報告書는 74—75年度 世界小麥收穫이 3億 3千 4百 40萬—3億 4千 3百30萬톤으로 豫想되다로 하여 73—74度の 3億 4千 50萬톤을 下廻하는 失望的인 豫想數字이다.

한편 같은날 美國務省이 發表한 小麥 등의 收穫豫想도 다음과 같이 우리의 愁眉를 피자 못하게 한다.

즉 小麥 4千 4百 80萬톤, 옥수수 1億 2千 9百萬톤, 大豆 3千 5百 80萬톤인데 이들穀種의 輸入國들 需要는 많이 美國產에 依存하고 있는데 當初 期待와 크게 어긋난 收穫豫想量이다. 이어서 73年 中盤期에 發生한 世界食糧危機의 쓰라림을 되짚게 하는 바이지만 예를 들어 小麥을 昨年에도 美國이 在庫를 합쳐서 3千 4百萬톤이나 輸出하였던 것이므로 앞날의 世界食糧難이 매우 걱정되기도 한다. 또 돌이켜 본다면 世界最大의 農產物 輸出國인 美國은 今年度에 食糧만의 輸出計劃으로도 193億弗을 策定한 바 있다. 즉 74—75年度の 全農產物의 輸出目標은 前年度에 比해 65%增인 213億弗인데 農產物中の 穀物은 史上 無類의 높은 水準으로서 物量으로는 3億 4千 4百萬톤이다.



金 尙 榮
<國會議員>

또 穀物輸出計劃의 增加率을 몇 個의 穀種에 限해서 金額으로 前年度와 對比하여 본다면 小麥이 99%增, 飼料穀物이 101%增, 쌀이 73%增等이다. 그러나 이같은 輸出計劃은 큰 蹉跌을 免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美國을 비롯한 穀物輸出國들의 豐作豫想을 뒤엎은 것이 曇비와 旱魃等이었다.

즉 8月 中旬에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① 春期雨量의 過多影響으로 말미암아 美國 캐나다 등의 穀物作況이 惡化하여 粟의 世界貿易量이 激減될 可能性이 傳해졌고 ② 이에 이어서 美國에서 穀物輸出 統制論이 擡頭하였다. 버즈美農相과 專門家들이 反對하는데도 不拘하고 그같은 統制論이 慎重한 檢討對象에서 後退되지 않았는데 그는 美國의 雜穀이 크게 減産될 듯하다는 農業當局의 發表가 있었기 때문이다. ③ 또 때를 같이하여 美國에는 穀物備蓄論議가 活發해 졌는데 버즈農相은 여기에서도 反對하였으며 그 理由는 貿易과 增産에 대한 意慾沮喪가 된다는데 있다.

④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世界銀行(IBRD)의 報告와 EC 農業危機의 呼訴, 그리고 食糧危機의 土着化를 豫告하는 世界食糧會議의 開催 ⑤ UN의 世界人口統計發表 ⑥ 美國穀價의 繼續적인 上昇 ⑦ 美農產物 販賣(輸出) 遲延態勢, 日本의 쌀消費價格 36% 引上推進에 대한 그 政府關係省廳間의 合意, ⑧ 食糧援助時代는 지났다는 美 버즈 農相의 言明, ⑨ 人口 8億 1千萬名(UN 統計의)中共이 74年度에도 1千萬톤의 穀物輸入을 하게 되었다는 것, 等等 一連의 事實들은 8月 1日을 基準으로 하여 美國의 農產物 價格이 1個月동안에 6%上昇(比前年末로는 1%上昇) 하였고 8月 24日

基準으로 美穀價가 年間 15% 上昇(當初는 上限線(12%)을 策定하였던 것)할 推計等과 더불어 今年度의 豐作豫想이 完全히 뒤엎어지고 穀物의 世界貿易量이 크게 減少되며 世界食糧時勢가 비싸질 3가지의 要素가 擡頭되고 있다고 느껴진다.

△ 흔들리는 世界의 穀倉

위에서 列舉한 몇가지 事項만을 좀더 具體적으로 말해 본다면 첫째로 IBRD는 破産危機의 開途國(開發途上國)이란 뜻의 一調査報告書를 公開하였는데 그 內容의 一部로 開途國은 今年에 油類값支拂로 1百 49億弗을 負擔하여야 하는데 이는 73年 實績인 52億弗의 3배에 가깝고 糧穀肥料代로 85億弗의 輸入用外貨를 消費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EC의 農業危機도 「에너지」 高價에 主因을 두고 있다. 油類波動의 打擊을 뼈저리게 받은 先進國이 日本과 EC인데 農業의 機械化, 科學化가 成就 되어있는 EC 農業國들이니 만치 에너지 價格昂騰의 影響을 받는 아픔이 各별하다.

세째로 UN의 世界人口 統計가 73年中半期 基準으로 發表되었는데 38億 6千萬名으로서 豫想된 37億 數千萬名의 線을 上廻하였다. 人口增加 抑制策으로서 表面 世界的인 家族計劃·産兒制限運動이 展開되고는 있지만 그 成果는 所期한바와 距離가 멀다. 73年度의 世界人口 增加率이 2%에 이르고 있음이 그를 말해주는 것이다. 적지않은 先進國들의 世界人口 增加率은 年間 0.1—0.6%인데도 不拘하고 年間의 世界人口 增加率이 2%에 達하고 있는 것은 後進國들의 人口抑制政策 實効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 8月 19日부터 同 30日.

걸쳐 루마니아에서 世界人口會議가 開催되었다. 149개國 代表 約 5千名이 參加하여 人口對策을 眞摯하게 討議한 셈이지만 어느 意味로 보아서는 吳越同舟의 感이 全然 없는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先進國들이 名實共히 積極의 人 人口抑制를 主張하지만 中南美, 아프리카 등에서는 自國의 經濟潛在力을 完全開發 하기 위해서 오히려 人口膨脹이 되어야 한다는 理論的인 傾向이 近年에 더욱 짙어져 왔기 때문이다. 勿論 아시아 地域 특히 開發途上國側의 企業社會에도 그러한 見解가 없지는 않다. 다만 中南美, 아프리카에서와 같이 表面化, 體系化 되어 있지 않을 뿐이다. 이와같은 先後進國間의 見解差가 世界人口會議와 같은 國際會議의 밑바닥에도 底流하고 있기 때문에 人口增加를 抑制하자는 소리가 「메아리」 높은 것이 될 수는 없다. 또 卒直히 말하자면 美國에 있어서의 人口抑制政策만 하더라도 그것이 社會經濟政策과 政治的 目的의 어느편에 더 큰 比重이 두어져 있는가에는 사람에 따라서 觀點을 달리하고 있다. 즉 白人社會의 美國人들은 人口增加抑制政策의 發動을 기다릴것도 없이 스스로의 産兒制限을 勵行하지만 對照的으로 黑人社會의 美國人은 所得이 增大됨에 正比例하여 産兒가 增加되므로 이러한 狀態가 어느 時點까지 계속된다면 美國民의 白, 黑人 構成比가 黑人優位化 될것이라고 國際專門家들이 指摘한 것은 이미 오래전의 일이다. 美國의 人口增加, 抑制政策이 지니고 있는 政治性도 크다는 見解는 여기에 비롯된 것이다.

네째로 資源問題로 UN이 史上最初의 特別總會를 열게 되었던 記憶이 생생한 가운데서 오는 11月에는 로마에서 世界食糧會議를 UN

이 召集하게 되었다. 資源問題를 議題로 하니 特別總會의 緊急召集의 動機가 에너지 및 食糧의 波動과 危機에 對한 것임은 周知하는 바이다. 그런데 또다시 食糧問題만으로의 世界會議를 열게 된 것은 食糧問題가 人類社會의 最大難題로 굳어져 가고 있음을 意識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同食糧會議가 어떠한 結論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에는 큰 期待를 가질 수 없고 오로지 ① 人口增加의 抑制, ② 資源 내셔널리즘의 擡頭可能性 排除, ③ 食糧 貿易 增進의 促求, ④ 國際穀價의 上昇調節 등의 包括的이고 抽象的인 結論을 導出하는데 그칠 것이다.

다섯째로 世界의 穀倉으로 自他共認하는 美國의 一動一靜은 世界의 食糧交易量 및 價格趨勢를 크게 左右하는 것인데 前記한 몇가지를 時點順으로 간추려 보면 첫째 7月 上旬 以來 急激한 價格變動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① 7月初부터 1個月 동안에 農產物價格이 6%나 올랐는데 이것이 가뭄의 탓이고, ② 8月 10日에는 今年 처음으로 小麥貿易量이 激減할 것 같다는 悲觀論이 擡頭되었으며, ③ 8月 13日에 穀物備蓄論議와 農務省의 雜穀減收의 豫想 發表가 있었고, ④ 翌 14日에는 穀物輸出 統制가 白亞館側에서 慎重檢討되었으며, ⑤ 8月 24日에는 穀物값이 年內에 15% 上昇할 것이라고 農務省이 發表하여 當初의 12% 豫想에 3%. 追加를 나타내었고, ⑥ 8月 30日에 農產物輸出을 遲延시켜서 政策調整 如何에 따라서는 對韓合意分도 그 歸趨가 달라질 것으로 憂慮를 자아낸 것 등등이 美國의 食糧문제를 싸고도는 움직임이었는데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9月 中旬에 들어서서 美國政府

가 今年度 自國產의 小麥, 大豆, 옥수수 等の 收穫豫想量을 밝히고 國際小麥 委員會가 올해의 小麥收穫豫想量이 前年度 水準을 下廻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74—75年度 世界食糧需給에 대한 年初來의 安堵感은 무너지고만 것이다.

△ 우리의 갈길

이렇게 世界食糧의 今年度產 收穫豫想이 悲觀論의인 狀況下에서의 우리나라 實情은 어떠한가? 夏穀이 20年來의 凶作이라고 하였다. 이래서 夏穀收買 實績이 8月 5日까지 57%에 그치고 있음이 밝혀지자 農水産部는 收買目標量 4百萬섬을 3百萬섬으로 縮小修正하지 않을 수 없었고 8月末에 마감한 夏穀收買實績은 2百 97萬 9千섬으로서 3百萬섬 基準으로 99.3%를 示顯하였다. 今年度產 夏穀收買 價格을 引上하였으나 今年產 秋穀收買價格의 引上線이 보다 높아질 것같이 傳해지는 것과 平面的으로만 對照, 比較할 수 없는 時差도 考慮하는 見地에서 夏穀收買 不振의 主因이 凶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秋穀收穫豫想量으로는 지난 8月 31日 農水産部가 8月 15日 現在로 3千 31萬 2千섬이라고 發表하면서 8月 15日後의 湖南地方 水害影響에 대한 關心을 아울러 表現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9月 14日 現在로도 湖南地方의 被害에 不拘하고 3千萬섬線을 突破할 것이라는 農水産部의 見解가 밝혀진바 있다. 일단 安心을 할 수 있는 터이지만 秋穀收穫에 대한 어느 程度의 影響을 줄 수 있는 素地가 季節的으로 尙存하고 있으므로 天祐와 人力(災害

防止 對策과 適期收穫 및 過渡期의 管理等)이 好調를 持續하도록 바랄뿐이다.

아무튼 우리는 國內凶豐間에 龐大한 量의 外穀을 導入하여야만 하는 實情이므로 國產의 豐作에 못지않게 世界食糧의 豐作을 念願하는 二重의 苦衷을 免할 수가 없다. 이러한 處地에서 하루빨리 解脫하자면 食糧自給率의 引上, 食糧의 節約, 새로운 食糧의 開發等이 다같이 切實히 必要하다.

今年度の 外穀導入 計劃은 小麥 174萬톤, 옥수수 65萬톤, 보리쌀 32萬톤, 콩 9萬톤 등으로 되어있는데 夏穀이 凶作이었으므로 追加導入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인지도 두고보아야 알 일이다.

그리고 食糧對策은 原則적으로 主로 增産에 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消費節約에 期待할 바 相當히 커진것이 오늘의 實情이다. 지난날 한때는 食糧의 濫費가 料食業界를 비롯한 都市에 있어서만의 現象으로 指摘되어 왔지만 近年에는 農村의 食糧消費率도 대단히 높아졌다. 쌀의 경우를 본다면 60年代에 일단 自給自足の 目標達成을 하였다가 後退의 蹉跌을 보게 된것은 人口增加 때문이라기 보다 쌀 浪費에 더 큰 原因이 있었던 것이다. 또 쌀값이 쌀 까닭에 消費가 늘어났고 특히 農家의 自家消費가 커졌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것도 事實이지만 보다 더많은 影響을 준 것이 消費風潮가 아닐까 생각한다. 또 이 風潮는 都市에서 農村으로 밀려든 旺盛한 消費性向과 農村의 所得增大가 複合的인 作用을 일으켜서 손쉬운 糧穀浪費風潮부터 形成시킨 것이다.

그러므로 農地整理, 農地擴大, 種子改良, 農業機械化, 水利의 高度化를 통한 全天候作 農의 體制化, 施肥, 施藥의 適期, 適量, 그리고 協業農의 擴大도 아울러 勵行하여 單位生産量을 올리되 良質의 쌀을 다운 된 코스트로 크게 增産할 것은 勿論이고 食生活을 「姿勢로써 健全化」시키고 「質적으로도 食糧을 節約하며 經濟的인 方向으로 改善」해야 할 것이다. 또 同時에 陸, 海兩面에 걸친 新食糧開發에 積極的인 進展을 할 때가 왔다고도 생각한다.

쌀을 自給自足할 目標年度를 76年度로 잡고 있는 우리이다. 76年度에 自給自足이 되기를 다짐하는 바이지만 各種 食糧을 合쳐서 總量의 自給化가 實現될 날은 아직 가깝지 않은것 같다.

예를 들자면 輸出을 年間 100億弗線에 올려다 놓고 1人當 國民所得이 1,000弗에 이르게 될 西紀 2千年代初에도 3百萬톤의 外穀을 導入하여야 한다는 것이 政府當局의 推計이기에 말이다.

增産 第1段階에서 쌀과 보리는 自給自足を 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小麥, 大豆 및 其他 雜穀들의 不足이 畜産飼料問題와 더불어 甚해질 政府公算인 것이다.

위에서 言及한바 食生活改善의 必要性은 國産穀種間의 不均衡狀態와 導入糧穀의 雜穀置重의 調和를 通해서 뒷받침 되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食糧을 增産하고 그 消費節約을 하며 新食糧을 開拓하는 등 3가지 方法에 最善을 다해야 할 理由는 國際收支面에서도 痛感케 된다.

즉 59年 以來 借款導入 統計는 總額 49億 9

千 2百萬弗로서 借款 42億 9千 9百萬弗, 外國人投資 6億 9千 3百萬弗로 되어 있다.

이와같이 적지 않은 外債를 지니고 있는 우리이므로 모든 輸入需要는 抑制해야 할 것이며 消費財 需要에 더욱 그러하다.

糧穀 또한 巨額輸入 需要의 一種인데 今年度 外換需給計劃을 修正하여야만한 趨勢를 보이고 있다.

그 예를 들자면 糧穀, 原油 및 其他 主要 原資材의 輸入負擔을 64億弗로 策定하였으나 約 4億弗의 超過가 不可避할 만큼 國際時勢의 變動 및 其他要因이 發生하였고 貿易外收支가 下半期에 들어서면서(7月) 1月來 統計가 收入은 7%밖에 늘지 않았는데 支出은 59.3%增加하였다.

結論하자면 農政面에서는 增産을 指向해 몸부림치고 있는 74年度란 印象을 받게 한다.

새 農地法案은 그 內容에 있어서 問題點들이 있어 今年 9月의 定期國會에는 提出치 않기로 된 것 같으나 農地擴張, 農業增産·農地配分 등을 위해서 많은 法案, 公社, 基金造成案 등이 胎動되었거나 이 時點에도 胎動하고 있는 것이다.

즉 ① 非業務用 企業不動産의 處分과 土地開發事業의 效率化를 위한 土地金庫法案, ② 農地買入基金新設推進(새 農地法案의 뒷받침), ③ 農耕地擴大促進法案, ④ 農業機械化法案, ⑤ 土地公債發行案 등이 그것이다.

옛말에 窮하면 通한다고 하였다. 國內的, 國際的으로 모두 食糧問題가 重大性을 加重하고 있는 이 事態가 問題의 解決을 促進시키는 契機이 되었으면 한다.